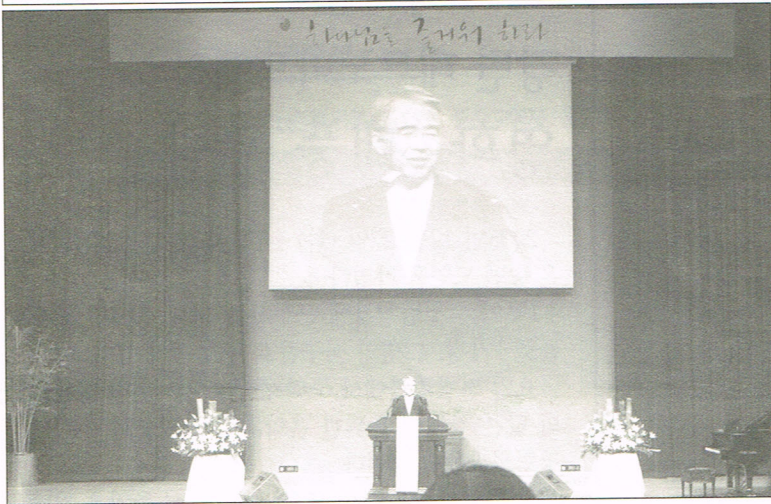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주님의교회 신년 표어

2006년 1월1일, 신년예배의 말씀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였다. 담임목사인 문동학목사는 시편5:1-12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 설교하였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문동학목사는 신년 설교를 통해 2006년 한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기초로 한 예배, 봉사, 경제생활, 성경읽기, 기도, 결혼, 선교, 고난 등이 무엇인지에 관해 배우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의 글을 설교를 요약한 내용이다.

성경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을 즐거워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즉 어떤 신앙행위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빠져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며 즐거움이 빠져있는 영성,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에게 안정과 번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를 즐거워하자는 것이 아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는 남아있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명백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다윗이 전쟁과 급박한 상황에서도 주를 기뻐했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피하는 자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개인의 이익과 관심사를 위해, 혹은 도덕적 의무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다. (2면에서 계속)

송구영신예배

2면



2005년 밤 11시 30분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 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여 송구영신예배를 드렸다.

2006년 제직사역조직

3면

2006년도 주님의교회의 제직부서 및 사역팀을 소개 한다.

2005 중국선교보고1

2면

아버지학교 안내

4면

15일 30CUP예배와 영화상영

4,2 면

4-1 정립구역 송년모임

2면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위한 4부예배



4부 예배 ‘오늘’은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소중한 도구이자

예배 그 자체입니다. 우리 주의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 하지 마시고 ‘오늘’로 초대하십시오. 4부 예배 ‘오늘’은 저들이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1월 8일 4부 예배 “오늘”에서는

올해 교회 표어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에 맞춰 “원더풀 라이프”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린다. 특별히 방송작가이자 리포터로 활동 중인 박근형씨의 1인극 “박선생의 즐거움 강의”가 있다. 이 순서를 통해 즐거움을 분석하고 삶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 줄 것이다. 또한 4부 예배 전속 싱어로 섬기게 된 김정아 자매가 Anne Murray의 “You Needed Me”를 들려 준다. 이 호목사는 살전 5:16-18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주제로 설교하게 된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기쁘고 감사한 삶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119사역보고

폭설피해현장 “소망재활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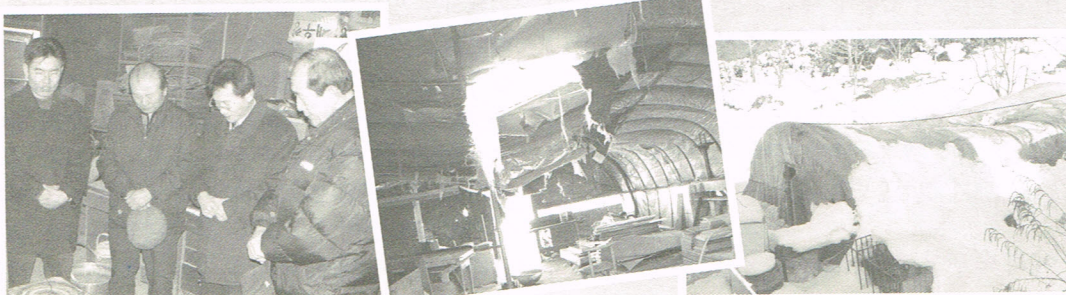
119사역팀에서는 호남지역의 폭설로 인한 재난 지역의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도울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27일 전주 주로 출동하였다. 119사역팀을 맡게 된 신화식목사를 비롯하여 성백술장로, 엄주청장로, 김영중

방문한 소망재활원(완주군 구이면 소재)이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곳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소망재활원은 장애인 시설로 현재 김질태목사가 6명의 원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자립적인

안수집사, 김홍용 안수집사가 동행하였다. 119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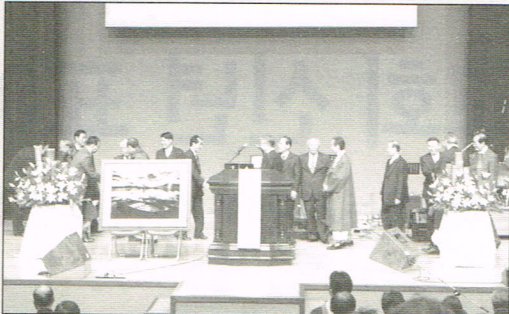
삶을 위하여 부국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닐하우스 공장을 운영하면서 빗을 제작하여 판매하지만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눈사태로 두 채의 공장 중 한 채가 무너져 생산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119사역팀에서는 무너진 비닐하우스 공장을 재건해 주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그 작업이 추진 중이다.



2005~2006 송구영신예배

새해 첫 메시지 “네 믿음대로 되라!”



2006년을 한 시간 앞두고 주님의교회에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밤 11시부터 주님의교회 30CUP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찬양했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중예배실까지 가득 찼다. 11시 30분에 호산나찬양대와 함께 송

구영신 예배가 시작되었고 예배 중 문동학목사는 예배로 2006년을 맞이하게 됨을 기뻐하며 정각이 되면 ‘할렐루야’라고 누군가 외쳐달라고 부탁했다. 어디선가 ‘할렐루야’ 외침이 있었고 성도들은 모두 함께 ‘할렐루야’로 2006년을 환영하며 박수쳤다. 새해 첫 시간 문동학목사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네 믿음대로 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를 통해 2005년을 매듭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구체적, 궁극적 믿음을 심어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에 부정적인 믿음은 거두고, 소원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동학 목사는 또한, 지금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라고 역설했다. 우리는 믿음과 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분명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배 후 성도들이 함께 애국가를 불렀고 주님의교회를 섬기는 당회원들이 나와 성도들에게 새해인사를 하고 성도들 또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눴다.

양육클래스 [나의 성지를 찾아], 난 성지순례 11일간 성지순례

한 학기 동안 양육클래스 [나의 성지를 찾아 : 이창현 목사]를 수강한 구강생 20여명은 이집트와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르는 성지순례의 길에 올랐다. 1월 4일 오후에 인천공항을 떠

난 성지순례 팀은 15일 오후에 순례를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다. 수업에 참여하면서 보고 배운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의미 있는 신앙의 경험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

영화상영 “몬스터 주식회사”

1월 15일(주일) 오후 3시 50분 소예배실

오후 4시에 드리는 30CUP 예배에 참석하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영화상영이 있다. ‘몬스터 주식회사’는 제목과는 달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기쁨 감동으로 전하는 월트 디즈니/픽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이다.



2005 중국선교 보고 시리즈1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에 취하고

다음은 양대 중국 가정교회의 진원지 중 한 곳인 남양에 다녀온 선교 보고의 글이다. 그곳에는 회교권·힌두권·북한에 파송할 선교사를 목양하며 신앙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유선교사의 참길예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인천공항에서 남양에 이르기까지

"그런즉 이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로 8:31)." 선교팀은 중보기도팀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태양빛 고운 중남부 선교지로 출발하기 위하여 12월 15일, 오전 7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모였다. 구성원은 주님의교회 홍민기 목사, 어머니 나라인 한국의 장신대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한 티커출신 손예리 자매, 선교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온 홍경자 소망교회집사, 그리고 주님의교회 중국선교팀을 섬기고 있는 필자가 만났다. 한국인 유요셉 선교사와 가정교회출신의 자녀 30여명은 남양에서 자비량 선교를 모델로 세계선교와 중국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목표로 신앙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선교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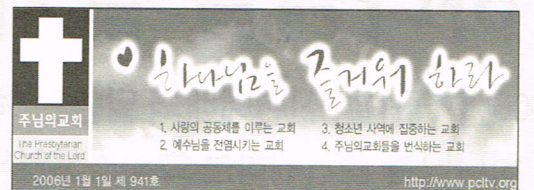
있다. ①세계선교의 비전을 품고 준비중인 참길예배(正道?房)의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②주님의교회 청·청소년들의 단기 선교여행과 2006년도 장년부 중국선교의 방향탐색을 위함이다. ③2005년 1월부터 예산지원을 시작한 곳의 한 해 동안의 현황을 돌아보고, 2006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곳은 중국내륙 농촌지역으로 외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서, 선교훈련과 공장운영을 병행하기에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지 약 20,000여 평에 ①약 6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및 실외 집회처소, 남녀 기숙사, 원형 스타디움과 ②자비량 선교를 위한 공장과 그 부대시설이 갖추어져있고, ③현재는 농한기의 값싼 마을 인력과 훈련생들이 함께 순환도로와 석축을 쌓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중국은 당국이 허용하는 삼자교회 이외에 어떠한 형태의 가정교회도 불법이며, 특히 외국인 선교활동이 금지되어있다. 이곳은 명목상 공장건립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주도적으로 고압선과 도로 정비를 해주었으며, 종교 활동에 대한 감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경내 여기저기 형형색색의 자그마한 십자가들이 꽃밭에 세워져 있어서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실정 때문에 유선교사가 공사현장에 있어야하고 집중적으로 선교훈련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만 소위 근무시간 외에 새벽 4시 반과 밤 7시 반에 각각 2시간씩 예배와 영성훈련을 겸하고 있다.

이 회 숙 권사(해외선교부 중국선교팀장)

주보 새단장

2004년 6월 27일(제862호)부터 사용해왔던 주보가 2006년 송구영신예배와 신년예배(제941호)부터 새롭게 개편되어 단장하였다. 새로운 주보는 지면을 6면에서 4면으로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주일예배 순서가 앞면으로 나오는 등 성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했다.



4-1구역모임,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영화 “태풍” 관람

2005년 12월 27일 (화) 4-1구역 (정립구역)은 작은 송년 모임을 가졌다.

4-1구역은 정립전자에 근무하는 지체 장애인 집사들로 7가정, 12명의 식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금요일 정립회관에서 구역 공부를 하며 4월 장애인의 달은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도 우리교회 주최로 정립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구역원들은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즐거운 저녁과 CGV에서 장애우 사역팀 신형섭, 은영희, 민욱기, 김영숙 집사들과 영화 “태풍”을 보며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였다.

3년 동안 구역 섬기미로 도와주신 김창안 집사를 대신하여 내년은 4-1구역에서 돌보미로 봉사하신 한군희 집사가 구역 섬기미로 봉사를 하게 된다. 금년에 구역 가족 모두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도 희망이 사랑을 빚어낸다는 것을 깨닫는 좋은 한해였다.

(1면에 이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주님의교회 신년 표어

그냥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지는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도 단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주의 백성의 본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초는 하나님, 당신의 기쁨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신다.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 이 본질적인 약속과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해야한다. 무엇을 주시든 주시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모든 생활에서 이 본질을 회복하는 한 해를 살아야 한다.

- **공동의회 의장** : 문동학목사 / 공동의회서기 : 권오승장로
- **당 회 당 회 장** : 문동학목사 / 당회서기 : 권오승장로
- **제 직 회 의 장** : 문동학목사 / 제직회서기 :

A. 선교사역본부 [5층 의무실]

• 본부장 : 한윤경 본부위원 : 이지화 본부교역자 : 정희성, 윤은성

사역팀
전문인 선교팀
단기선교팀
선교지원팀
주한외국인선교팀
캄보디아선교본부
탈북자사역팀
농어촌교회사역팀
도시개척교회사역팀
군부대교회사역팀

C. 교육사역본부 [4층 교회학교사무실]

• 본부장 : 이영자 본부위원 : 김완중 본부교역자 : 홍만기, 김현령

사역팀
통합유아부
통합아동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교육지원부
중등1부
중등2부
고등부
유소년축구팀
AWANA사역팀
청년부
30대사역팀
학원선교팀
청소년사역본부
방과후학교

D. 봉사사역본부 [4층 당회원실]

• 본부장 : 박호길 본부위원 : 김성배 본부교역자 : 이호, 박의일

사역팀
봉사부
주방부
주차안내부
자원봉사연결팀
שלמחן물가팀
도서사역팀
결혼예식팀
홍보출판팀
함글함울 편집팀
음향사역팀
영상사역팀
경조1부
경조2부

B. 복지사역본부 [5층 상담실]

• 본부장 : 문창복 본부위원 : 엄주청, 김양자 본부교역자 : 우동윤, 신화식

사역팀
하프타임사역팀
환경사역팀
호스피스사역팀
법률상담사역팀
전화상담사역팀
복지선교팀
장애인사역팀
기관선교팀
구제사역팀
119사역팀
소년소녀가장사역팀
결식아동사역팀
단전단가스가정사역팀
일용근로자사역팀
노숙자사역팀

E. 목양사역본부 [4층 교역자실]

• 본부장 : 김경신 본부위원 : 김재현 본부교역자 : 이창현, 정영환

사역팀
예배부
안내부
통역사역팀
새벽기도사역팀
세례사역팀
호산나찬양대
시온찬양대
살롬찬양대
할렐루야찬양팀
새가족사역팀
가정사역팀
양육사역팀
목요모임팀
중보기도사역팀
전도예배사역팀
영어예배사역팀
동호회지원팀
인터넷팀
교회역사자료보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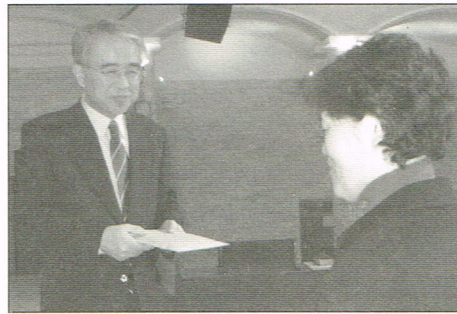
기타 사역위원회

사역팀
재정위원회
장학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주님의동산
건립위원회
사무국

양육클래식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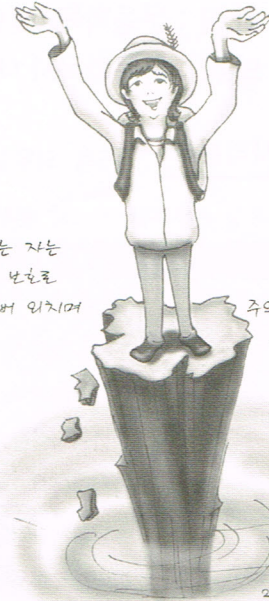
12월 28일 수요일에 양육 클래식 수료식을 가졌다. 19개 강좌의 양육 클래스에서는 자주 접해 볼 수 없었던 말씀도 깊이 생각 할 수 있었고 서예, 사진, 외국어 등 여러 방법으로도 성경 말씀을 접해 보았다. 사진 강좌는 작품을 직접 만들어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수성찬 속에 최고의 영양분도 섭취할 수 있었다. [나의 성지를 찾아] 강좌를 들은 최동휘 집사(2-10)는 선지자들의 성지를 찾아 믿음을 바탕으로 의심 속에서 시작된 출애굽의 역사부터 순례자의 길을 따라 해방된 자아를 찾고 가나안을 찾는 천로역정의 마음으로 성

지를 찾아, 보이지 않는 신앙까지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94명의 개근상 대표로 왕명숙(5-4)집사가 담임 목사로부터 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이호목사는 이사야서 55:1-5을 가지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라는 말씀을 전했다.



오늘 기도

오직 주께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이다.

2005. 1. 8.

4부예배 오늘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초대하십시오

교회에 이웃에 낯선 이들을 위한 기획 시리즈3

4부예배 "오늘"에서는 "하나님이 쉼을 주는 편견을 버려"라는 주제를 시리즈로 3주간 기획하여 예배를 드린다. 이 기획 시리즈 예배를 통하여 아직 하나님이 낯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

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교우들이 이 예배를 전도의 장으로 활용하여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부탁한다.

- 1회(1월 15일)는 "내겐 너무 거룩한 교회",
- 2회(1월 21일)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하나님?",
- 3회(1월 29일)는 "내 친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아버지학교, 다시 시작한다!

2005년 감동과 은혜 가운데 열렸던 아버지학교가 금년 2월 12일부터 주님의교회에서 다시 열린다.



아버지학교에서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주일 오후 4시부터 많은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모여,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5주간의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아버지학교에서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지, 또 사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여 아버지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어떤 특권과 의무를 주셨는지 등을 배우고 학습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계기가 된다.

[동부 21 기 <아버지학교> 안내]

- 1) 기간: 2월 12일(주) - 3월 12일까지(5주)
- 2) 장소: 주님의교회 소년부실
- 3) 기도모임: 매주화요일 저녁 7시30분 (간단한 식사제공)

- 4) 신청방법: 조선연집사 (017-747-1233), 김중호집사 (018-355-2807)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학교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 구성원간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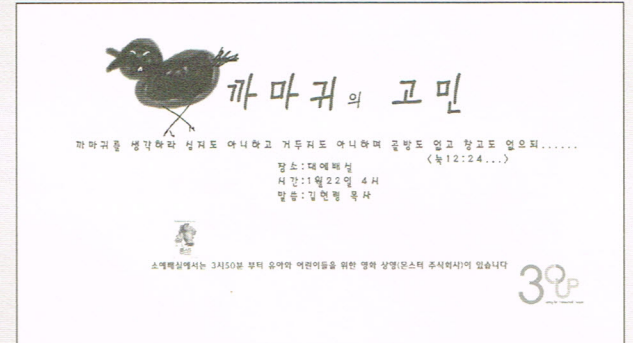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아버지상이다. 아버지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자일 때, 비로소 가정이 회복되고 그 권위가 회복된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보내신 대리자로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따라서 아버지가 바로 서야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설 수 있다.

아버지는 또한 순결해야 한다. 아버지들은 성적으로 순결하고, 삶에서 순결해야 하고, 영적인 생활에서 순결해야 하며, 아버지가 순결할 때 치유와 회복, 용서와 화해, 조화와 연합, 변화와 성숙,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 무엇보다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먼저 아내와 친밀해 져야 한다. 좋은 남편이 되지 않고는 결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되어 가정을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며,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 주게 된다.

2006년 첫 30CUP 예배

2005년 4월 17일에 시작한 30CUP 예배가 2005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30CUP 찬양팀의 찬양이 있고 김현령목사는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까마귀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다. 바쁘고 분주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은혜의 시간이 연속되고 있다. 30대뿐 아니라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1월 15일(주) 오후4시 대예배실



크리스마스파티와 '나니아연대기' 영화관람 방과후학교, 학생들을 위한 연속 행사 진행



방과후학교에서는 지난 12월 24일, 오후2시부터 유아부실에서 학생들을 위한 크리스마스파티를 열었다. 방과후학교에서 사역하는 집사와 권사들이 손수 음식을 만들고, 간단한 게임도 준비하여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파티장소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색종이 장식으로 꾸미고, 풍선을 달며, 크리스마스트리장식을 만들었다. 또 어느 권사님이 성경구절

로 만든 장식품을 트리에 단 후, 학생들과 교사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뽐아보기도 하였다. 앞으로 방과후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신입/기존학생들과 교사들의 즐거운 나눔과 만남의 시간이었다. 또한 12월 31일(토)에는 방과후학교팀이 단채로 영화 '나니아연대기' 관람을 했다. 영화 나니아연대기는 영문학자이며 신학자로 알려진 C.S.루이스가 성서의 메시지를 모티브로 쓴 판타지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오전시간 영화를 관람한 후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종전대로 수업을 진행하였다.